우암학원 창학 71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740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3월 20일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창간 70주년에 부쳐 … 100년을 향한 '정론직필' 여정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여송
〈회장·발행인〉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의 어록 가운데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전적 명제가 되다시피 한 그 말은 언론의 중요성, 그 가운데 신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명언입니다. 디지털 세계가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지만 공기(公器)로서의 신문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화두임을 말해줍니다.

오늘로 광주일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았습니다. 6·25라는 척박한 환경을 딛고 1952년 닻을 올린 광주일보는 그동안 호남언론의 역사를 대변해왔습니다. 80년 5·18을 비롯해 격동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시대의 증언자로, 더러는 지역민과 독자들의 파노라마 같은 삶을 담아낸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혹자는 인생 70세를 일컬어 '종심'(從心)이라고 말합니다.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로 공자가 "나이 일흔에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라고 한데서 유래했습니다. 세상사를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바라볼 수 있는 인격적 성숙을 뜻하는 말입니다.

'종심'은 70돌을 맞은 광주일보가 견지해야 할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무엇보다 균형감각이 요구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와 갈등이 사실 균형감각을 상실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광주일보 사시(社是) 가운데 하나인 '불편부당의 정론을 편다'는 종심의 미덕을 환기하는 혜안(慧眼)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아보면 광주일보의 70년은 결코 녹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한 세월을 견디며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독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질책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남봉(南鳳) 김남중 회장과 김종태 회장이라는 '두 기둥'이 존재했기 때문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김남중 선생은 6·25의 참화가 채 가시지 않은 1952년, 신문사를 설립해 호남언론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올해로 67회째를 맞은 '호남예술제'가 광주와 전남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종합예술제로 발돋움한 데는 남봉 선생의 남다른 식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여 인원만 58만 명에 이를 만큼 내로라하는 예술가들이 호남예술제를 거쳐 갔습니다. 또한 김종태 회장은 84년 문화예술매거진 '예향'을 창간해 호남의 문화와 예술을 콘텐츠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 결과 '예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가 자랑하는 대표 문화잡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들이닥친 세계 경제위기로 언론 또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일보는 역경을 딛고 호남 최초로 '리더스 아카데미'를 설립해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계 리더와 전문가 등 700여 명이 아카데미를 거쳐 갔으며 이들은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70주년을 맞은 오늘, 저는 광주일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신화의 한 부분에서 찾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라는 장편 서사시가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과 이후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숱한 위험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일으킨 폭풍우로 한때 죽음의 고비를 맞기도 하고 외부의 공격을 받아 난파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신화 속 영웅담이지만 오디세우스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든 위기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자연의 이치이자 삶의 순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광주일보 또한 영광보다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 시련과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정론직필'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론 환경이 바뀌고 인터넷의 정보 편중이 심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신문의 기록성과 역사성의 가치는 더욱 부각됩니다. 혹여 예상치 못한 역경에 부딪히더라도 광주일보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80년, 90년, 100년을 향한 항해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 현안의 공론화를 비롯해 핵심 아젠다 제시와 같은 언론 본연의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지난 70년 광주일보를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호남, 미래를 선점하라

광주일보 제안 광주·전남 아젠다

인구 감소에 정치·경제 영향 줄어
새로운 도약 위한 특단 대책 필요

호남은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

천혜의 자연, 전통문화, 농어업, 공동체, 의로움으로 상징되는 호남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의 상징이었고,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는 낙후의 대명사였다.

경부축 중심의 정부 경제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성장은 더뎠고, 상당수 호남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등지고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각고의 노력 끝에 정착해 그 지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호남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의 토대가 됐다. 호남인의 피가 여전히 흐르지만, 2대에서 3대로 넘어가는 지금, 그 농도 역시 점차 옅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호남의 인구는 뚜렷한 전환점 없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국가 예산이 인구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투입되면서 기반시설, 편의시설, 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압도적인 수도권, 영남권에 연구개발기관, 민간기업 등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충청지역에도 추월당해 호남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대도시 광주는 인구 정체, 전남과 전북은 인구 소멸 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국면이다.

과거, 현재를 거쳐 호남은 농축수산물 주생산지로, 한국 민주주의 상징으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경제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며, 다가올 미래에 호남도약을 맞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람과 기업이 몰리고, 문화예술이 꽃을 피우며, 후한 인심과 공동체의 정이 살아 있고, 공간의 개성과 매력이 넘쳐 생기가 도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각 분야별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19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조립공장에서 직원들이 캐스퍼의 출고 전 마지막 검수를 하고 있다. 광주는 인공지능(AI)과 미래자동차, 전남은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로 미래를 개척해나가고 있다. 작업 중인 직원들과 캐스퍼의 모습을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의 미래는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함께 기획하고, 이해득실에서 오는 차이는 상호 조정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희망이 있다. AI(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미래 자동차, 바이오 등과 관련된 국책 연구기관,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2면으로 계속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光州日報 70 1952 – 2022

광주일보 70년 발자취·나와 광주일보 ▶A 2·3면
"광주일보는 호남 근현대사의 거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지 70주년 축하 메시지 ▶2면
도올 김용옥 특별 인터뷰 ▶3면
한승원·문순태 작가 창간 70년 축하 기고 ▶4면
6·1 지방선거 누가 뛰나 시도지사·시도교육감·구청장·시장군수 ▶5~8면
2022 광주·전남 아젠다 ▶11·12면
모두를 위한 길 위의 갤러리 공공미술 ▶14면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15면
청년이 미래다 – MZ 세대 ▶16면
광주·전남 스포츠 스타들 축하 메시지 ▶20면

'전남방문의 해' 22개 시·군 일소일미 ▶B 1~24
'성장·공존' 광주일보와 함께한 사람들 ▶C 1~36

오늘 창간특집 88면 발행합니다

광주일보 70 창사 70주년
2022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Korea Brand Power Index 1 2022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지방은행 부문 5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Since 1969 광주·전남 대표은행
광주은행
코로나19 위기 극복 광주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